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하위주체성과 재현

존 베벌리 (지은이) | 박정원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간일: 2013-06-20

ISBN(13): 9788976827715

376쪽 | 220*150mm

‘트랜스라틴 총서’ 11권.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세계적 석학 존 베벌리의 대표적인 저서이자, 1992년 미국에서 결성된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 그룹’의 10년간의 연구 결과물이다.

20세기 들어 전지구가 신자유주의적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표방하는 좌파 정치 세력들이 속속 집권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다문화적 차이가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하위주체 또는 민중의 정치적 연대는 어떤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능할까? 문학의 한계, 좌파 정치 운동의 한계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학계의 권위와 문학의 권위 등 모든 체계모니를 해체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진정한 민주화와 변화를 위한 구체적·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베벌리의 급진적인 문화정치 이론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

조돈문 (지은이)

출판사: 휴머니티스

출간일: 2013-05-10

ISBN(13): 9788964371800

342쪽 | 223*152mm (A5신)

차베스, 인민의 호민관인가 독재자인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각이 바로 차베스 정권의 성격을 둘러싼 ‘대중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즉, 한편에서는 차베스 정권을 집권 연장에만 연연하는 대중주의로 규정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차베스 정권을 진정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로 규정한다.

이러한 대조적 시각은 베네수엘라의 사회 변화와 동학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비롯되었지만, 일련의 정권 전복 기도들과 함께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며 점차 반(反)차베스와 친차베스라는 정치적 입장과 결합하게 됨으로써 차베스 정권의 성격과 성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평가는 어렵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차베스 정권 실험의 변혁적 실체와 성과를 분석하며, 차베스 정권의 변혁 추진 전략의 동학과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1부는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불안정성을 분석하고, 제2부는 노동계급의 딜레마와 주체 형성 문제를 검토하고, 제3부는 공동경영을 둘러싼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전략과 함께 사례연구를 통해 공동경영의 실질적 실천과 성과를 분석하고, 제4부는 베네수엘라 변혁 실험의 실천적 함의를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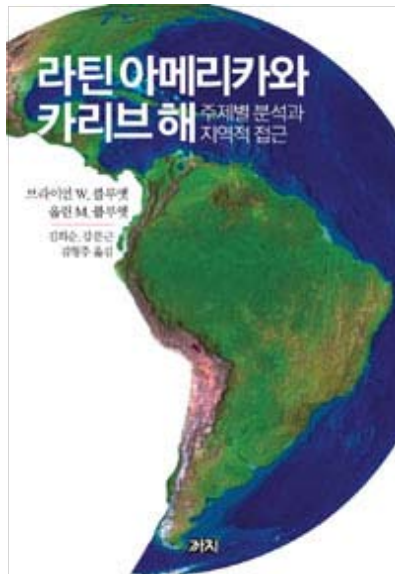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브라이언 W. 블루엣 외 1인 (지은이) | 강문근 외 2인 (옮긴이)

출판사: 까치

출간일: 2013-04-15

ISBN(13): 9788972915386

616쪽 | 225*155mm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저서로 손꼽히는 책으로, 1982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거듭하여 2010년에 제6판이 발행되기에 이르렀다. 판이 거듭될수록 각종 데이터, 사진, 지도 등을 보강하고 시대적 상황 및 주요 관심사에 따라 서장을 재구성하여,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가장 체계적이며 최신의 내용을 담은 저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책 제1장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정치, 근대화 등에 대하여 개관한 뒤, 크게 주제별 접근과 지역별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1부 주제별 접근에서는 다양한 주제별로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봄으로써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경관 및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한다. 제2부 지역별 접근은 33개국이나 되는 라틴아메리카를 여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공통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가진 지역 단위별로 설명하고, 각 지역의 지리,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동안 국내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역사, 사회, 문화 관련 서적은 다수 출간 혹은 번역되었으나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의 “지역”으로서 본격적으로 다룬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책에는 풍부한 통계 자료, 사진, 지도 등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역동적 모습을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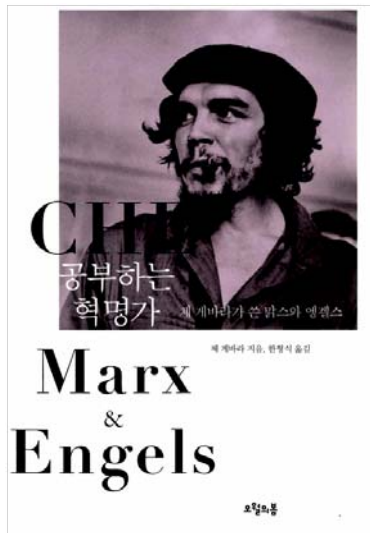


사진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공부하는 혁명가- 체 게바라가 쓴 맑스와 엥겔스

체 게바라 (지은이) | 한형식 (옮긴이)

원제: Marx And Engels (2008년)

출판사: 오월의 봄

출간일: 2013-05-30

ISBN(13): 9788997889228

154쪽 | 188*128mm (B6)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체 게바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는 그가 죽은 뒤 수십 년이 지나

도록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체의 면모, 바로 맑스주의자로서 체 게바라, 맑스주의에 입각한 구체적 경제 정책의 고안자이자 실행자로서의 체 게바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재조명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꿈꾸는 이들에게 체의 경제사상이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맑스주의자로서 체 게바라를 이해하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넘어 체가 바랐던 다른 세상,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꿈을 함께 꾸는 것이다.

2008년 체 게바라의 미발표 원고를 모아 출판된 이 책은 체가 콩고에서의 혁명운동이 실패한 뒤 탄자니아와 체코에 머물면서 볼리비아에서의 마지막 실천을 준비하던 시기에 쓴 것이다. 그리고 이 원고는 소련에서 나온 1963년판 정치경제학 편람에 대한 비판적 논평과 함께 작성되었다. 체가 그 짧은 생애의 끝부분에서 소련의 공식적인 정치경제학과 경제 정책에 거리를 두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혁명의 성공과 실패, 그 환희와 좌절의 순간을 거쳐 온 체는 왜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을 다시 읽으며 그들의 생애를 좇았던 것일까? 맑스와 엥겔스의 삶과 그들의 사상 속에서 그는 무엇을 찾고자 했던 것일까?